

5년간 250조 투입... 산업 자금줄, 생산 분야로 공급

10 산업은행



정부가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향후 5년간 2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해 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을 크게 4개 축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00조원, 지역금융 확대에 75조원, 산업균형 유도에 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25조원을 각각 배정했다.

25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연계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자금' 신설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에 100조 5년간 '혁신성장 프로그램' 가동

수도권-지방 연결 다극 성장축 조성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나서

◆ 국민성장펀드 25조·첨단산업 100조

먼저 산은은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5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 산은 내부에 국민성장펀드 부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국민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와 정책펀드 조성에 공동 참여하고, 산은이 주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리스크를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금의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산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첨단·미래전략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문화·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00조원 가운데 90조원은 AI 대전환 지원자금과 미래전략산업 지원자금 등 특별상품에 배정된다. 나머지 10조원은 스케일업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Ⅱ 등 신규 펀드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도 AI 산업 전반으로 넓힌다. AI 기술 보유기업 육성과 AI 데이터센터(AIDC) 확충, AI 팩토리 전환(AX)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R&D)부터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 지역금융에 75조...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에도 향후 5년간 75조원을 공급한다. 수도권 중심의 단일 성장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다극 성장축을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 지점의 대출 기능에 본점이 담당해온 벤처투자(VC)와 펀드 조성 등의 기능을 더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완결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충남 천안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정책금융 플랫폼(가칭 NextHub in 충청)'이 첫 모델이다. 중부권 정책금융 플랫폼은 지역 정책금융 허브와 창업·벤처 지원 거점 역

'KDB 넥스트 코리아' 프로그램 내용

2030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생산적금융 250조원 공급

국민성장 프로그램	혁신성장 프로그램	지역균형 프로그램	산업균형 프로그램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강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 자금 10조원 신설 - 대형 프로젝트·정책펀드 지원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90조: AI·미래전략 산업 특별상품 10조: 스케일업등신규펀드 - AI데이터센터·AI팩토리 전환 지원	- 국가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산업 특별자금 신설 -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 -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25조원	100조원	75조원	50조원

자료/한국산업은행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뉴시스

할을 맡는다. 산은은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 기본안을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향후 이를 모델로 다른 권역에도 정책금융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은 영업망과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지역 유망산업의 금융 수요를 발굴하고, '5극·3특' 지역별 육성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혁신산업지원 특별자금' 등을 신설하고 연간 15조원씩 5년간 총

75조원 규모의 우대 특별상품을 운용한다.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축진을 위해 지역혁신산업지원 특별자금 신설 등 15조원 규모의 우대 특별상품을 운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KDB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